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10월 18일 (금)

(음력 9월 16일)

Пятница

18 октября 2024 г.

№ 41 (1210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0월 20일은 러시아에서 아버지의 날로 기념한다.

(이예식기자 촬영)

## 단신

### 사할린, 현대적 농공산업단지 개장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도매유통센터를 갖춘 극동에서 우수한 농공산업유통단지 개장식이 10월 16일에 열렸다. 26개 기업들은 이미 농산물유통센터 단지에 입주했다. 이들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소시지, 육류 반가공품, 만두, 콜바사 제품(훈제 소시지), 생선살 통조림, 해초와 물고기 기름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게 된다. 농공산업단지에는 사할린 국립 생물원 소화센터가 자리잡고 있어 이 과학연구소에서는 건강에 더 유익한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세부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진행한다. 농공산업단지는 총 3개 건물로 이뤄져 있어 생산단지 5000m<sup>2</sup>와 더불어 사할린의 농산업 기업들이 배치돼 있으며, 도매유통센터는 제품 15,000 톤 일시저장 및 1000톤의 채소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다.

### 사할린, 러시아컵 청각장애인 태권도 경기 처음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 '태권도' 경기장에서 열린 러시아컵 청각장애인 스포츠 경기에 크라스노다르스, 연해주, 다게스탄, 아디게야, 펜자주, 로스토브주, 사할린주, 모스크바 등지에서 온 선수들 150여 명이 자신의 기술을 발휘했다. 사할린주에서 이러한 시합이 처음 개최된 가운데 태권도 선수들은 체급별 경기 및 '폼새'시합에서 경쟁을 치렀다. 사할린 지역 대표로는 청각장애인 태권도 스포츠 국내 선수권대회 우승자이자 수상자인 김 이고리 선수가 출전했으나 부상으로 인해 상위권에 들지는 못했다.

### 사할린주와 알타이 변경이 현행 협약의 일환으로 협력 확대

10월 16일(수) 알타이 변경의 방문대표단이 실무차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방문했다. 방문단은 지역 정부 및 시베리아 지역 기업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회담의 일환으로 사할린주와 알타이 변경이 2024년-2027년에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문화, 기타 분야들에서 협력에 대한 협약 갱신 시행에 따른 행사 계획에 조인했다. 또한 박물관 전시회 진행에 대한 협약도 체결했다. 사할린주와 알타이 변경은 20년간 상호협력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 사할린주, 연송어 6만7천 톤 어획

태평양 연어 어획 작업이 쿠릴열도를 비롯해 사할린 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2024년 연어류 어획량은 마카로브에서 1만8천697톤, 돌린스크에서 1만3천770톤으로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다. 올해 10월 15일 현재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역들에서 총 6만7천564톤의 연어류를 어획한 가운데 송어가 3만3천500톤, 케타(연어)가 3만1천900톤, 네르카(홍연어) 1천357톤, 은연어 710.6톤을 어획한 것으로 발표됐다.

## 사할린 주두마, 지역 예산에 수정안 승인

사할린 의회 의원들이 사할린 주정부가 준비한 2025년-2026년 계획기간을 위한 2024년 지역 예산 수정안을 2차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2024년에 지역예산의 소득이 277억 루블리가 증가한 2,126억 루블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요 요인은 '사할린-1'과 '사할린-2' 석유가스기획의 수익 증가에 있다. 예산 수정안에는 <과학과 대학> 국민기획의 일환으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사할린 테크' 캠퍼스의 건설을 위한 연방 정부기관으로부터 47억 루블리 규모의 자금 유입이 고려되었다.

사할린주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추가된 자금은 사회적 목적과 경제지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노후주택으로부터 이주를 위한 자금 규모는 총 42억 루블리 이상으로 증가하고, 15억 루블리는 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에 사용된다. 또한 보건 분야를 위한 자금이 약 10억 루블리로 증가한 가운데 이 자금은 의료장비 및 의약품 구입, 의료인력 유치, 항공 위생서비스 비용으로 책정되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잘 정비된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응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할린 전 지역들이 지역 예산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을 받는데 총 금액은 25억 루블리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전권의 공동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보조금 규모가 57억 루블리로 증가된 것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89억 루블리로 증가한다.

## 러시아 보리스 슈킨 연극대학 분교, 처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운영

모스크바의 보리스 슈킨 연극대학 극동 분교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운영을 개시했다. 건물에서 대대적인 개조 공사가 완료된 가운데 내년에는 사할린 지역에서 연극 및 영화배우 연기교육이 시작된다. 10월 14일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연극대학의 학장, 러시아 연방 국민배우인 예브게니 크나제브가 미래의 전문대학에 대해 설명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 사할린은 극동지역에서 연극예술 발전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우리에게 창의적인 아동들과 청년들이 많다. 이제 연극교육을 받기 위해 모스크바로 가거나 러시아의 다른 도시로 갈 필요가 없다. 반대로 훌륭한 선생들이 연기력과 영화제작, 시나리오 작성을 전수하기 위해 우리에게로 올 것이고, 재능있는 청년들이 극동 전 지역에서 우리에게로 모여들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가 사할린 극장들과 국내 다른 지역

들을 위한 인재양성의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 문화부 올가 류비모와 장관은 중요한 행사를 기념하여 환영사를 전하며 "이는 극동지역에서 연극교육 발전의 길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국내 우수 예술대학들 중 하나의 대학 분교 설립은 지역의 문화적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보리스 슈킨 연극대학의 연극학교 졸업 연극 순회공연은 사할린 주민들에게는 찬란한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슈킨 연극대학의 예브게니 크나제브 학장은 소비에트 영화감독이자, 배우이며,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의 애제자이고, 후계자인 예브게니 와흐탄고브의 흥상을 주지사에게 전달했다. 1914년 와흐탄고브는 자신의 연극학교를 설립하고, 그의 방법론은 한 세기 이상 명성 높은 '슈킨'대학에서 가르쳐졌다.

(3면에 계속)

새고려신문

## 2025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5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계속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92,94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새고려신문 주최의 글짓기, 사진 공모전 수상작 시상식으로 한민족지 75주년 기념

지난 11(금) 러·한 기관의 대표 자, 콩쿠르 참가자, 애독자, 후원자, 사할린한인단체 대표, 학생 등 총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 '마야크(등대)'아트회관에 자리잡은 주 미술박물관 전시관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글짓기, 사진 공모전 발표·시상식이 새고려신문사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가야금 연주(담당: 체오 나탈리아)로 개막됐다. 다음 새고려신문 역사와 현황에 대한 간단한 영상발표가 있는 후 새고려신문사 배 워토리아 사장은 75주년을 맞이한 사할린 한민족지는 그 동안 '조선노동자', '레닌의 길로만' 이름으로 그리고 1990년부터는 새고려신문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독자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며, 행사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날 행사의 가장 귀중한 손님으로 올 10월에 만 100세를 맞이하는 이순귀 할머니를 소개했다. 할머니는 사할린 한글신문을 첫호부터 읽어오신 애독자이다. 어르신은 이날 몇 마디 해달라는 요청에 '사할린. 남사할린 좋기도 좋네. 경치가 좋고, 인심이 좋아 살기가 좋네요. 살기가 좋아요... 열기구 절기구 지화자.'라며 노래를 불러주었다.

이날 러시아 외무성 블라디미르 노소브 유즈노사할린스크 대표와 주 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박상태 소장이 새고려신문 75주년을 축하하고 사할린에서 한글, 한민족 문화와 전통, 풍습 보급에, 그리고 한·러 관계 발전을 늘 반영하는 데 한민족지가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노소브 대표는 자기도 새고려신문 러시아어판을 잘 보고 있는 편이

라며, 신문이 지속적으로 신뢰받고, 올바른 뉴스를 전달하고, 모국과의 연결하여 독자들에게 잘 다가가길 기원했다.

박상태 소장은 유창한 러시아어로 축하인사를 전하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인사를 전했다.

이날 러시아 기자 동맹 사할린 지부 간부회를 대표해 참석한 웨라 볼투노와 위원은 새고려신문과 동갑인 본사 이예식 사진 기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새고려신문 75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이날 사할린한국교육원 정승훈 원장은 한국의 한강 소설가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소식에 너무 기쁘다고 전하며,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한·러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 기대를 표명했다. 또한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한국어에 대한 애정을 키워주시고, 새고려신문을 많이 구독하길 기원했다.

새고려신문이 공모하는 콩쿠르에는 사할린은 물론,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와 한국에 있는 사할린동포와 러시아 학생들이 참가했다.

이예식 기자는 이날 새고려신문이 개최한 사진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했다. 공모전 주제는 한민족 문화 예술, 풍습, 사할린한인 역사, 그리고 사할린 한인 가족이 었다. 최우수, 우수자는 없었고 장려상(상금 3,000루블리) 6명(안영수, 배 이리나, 김상순, 박 리디아, 전경자, 경자체오 나탈리아)이 받았다.



이날 엘레나 이콘니코와 사할린 국립대 교수는 심사위원회(허 로만 시인·소설가, 장태호 시인, 이콘니코와 박사)를 대표해 러시아어 에세이 콩쿠르 수상작을 평가했고 장태호 시인과 함께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했다.

1등(상금10,000루블리)은 소명수(65세, 안산), 2 등(상금 7,000루블리)은 배 이리나(하바롭스크), 김상순(유즈노사할린스크), 3등(상금 5,000루블리)은 김 마리아와 김원자, 특별상(상금 3,000루블리)은 한민족과 러시아 동화를 비유해본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 니 아리나(15세)가 받았다.

소명수 씨의 '아빠' 수상작이 이

날 고등학생 신 막심이 이날 관객들에게 잘 낭독해주었다.

2024년 공모작의 주제는 <우리 가족>으로 한국어 작품에서는 주제 제한없이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의 전통, 풍습, 사할린의 역사와 관련된 글을 공모했다.

한국어 원어민 박혜신 선생은 한국어 글짓기 콩쿠르 심사위원장으로 이날 콩쿠르에 들어온 작품을 평가하고 "모든 응모된 작품들에는 진심이 담겨있었다. 그중 4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알렸다.

1위(상금 15,000루블리)는 김경순 씨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2위(상금 10,000루블리)는 이 잔나 씨의 <사할린 사람의 사고방식>, 3위(상금

5000루블리) 박정순 씨의 <나의 아버지의 이야기>와 이채인 씨의 <문 열어 주십시오!>(시) 작품이었다.

이날 전경자(사진 장려상)씨, 김상순(러시아어 에세이 2등)씨가, 한국어 문예콩쿠르 수상자인 이채인(3위)씨, 박정순(3위)씨와 김경순(1위) 씨가 수상 소감을 전하며, 진심 어린 감사와 새고려신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공식 행사는 장기간 새고려신문을 돕고 협력하는 기관 및 업체 대표들에게 감사장 전달식으로 끝났다. 공식행사 후 있는 다과회에서도 새고려신문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본사 기자)

(이예식 기자 촬영)

## 이 모 저 모

### 새해 연휴 11일간으로 연장

2025년 새해 연휴 변경에 대한 제정에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가 승인했다.

새해 1월 4일과 5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되면서 휴무일로서 이틀을 5월 2일(금요일)과 2014년12월 31일(수요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휴무일 변경은 2월 23일 일요일은 5월 8일 목요일로, 3월 8일 토요일은 6월 13일 금요일로, 11월 1일 토요일은 11월 3일 월요일로 변경하여 휴일로 보낸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오는 새해 연휴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월8일까지 11일간 연휴가 된다.

요약하면 2월 23일과 3월 8일은 2일간 연휴(2월 22일과 23일, 3월 8일과 9일)

5월 명절 연휴는 4일간(5월 1일- 4일, 5월 8일 -11일)이다.

러시아의 날은 4일간 연휴(6월 12일 - 15일) 국민 단결의 날은 3일간 연휴(11월 2일 - 4일)이다.

###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продлятся 11 дн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подписал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переносе выходных дней в 2025 году.

В новом году 4 и 5 января выпадают на субботу и воскресенье. Так как это нерабочие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их решено перенести на пятницу (2 мая) и среду (31

декабря 2024 г.)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Кроме того, нерабочие дни перенесены: с воскресенья, 23 февраля, на четверг, 8 мая; с субботы, 8 марта, на пятницу, 13 июня; с субботы, 1 ноября, на понедельник, 3 ноября.

Таким образом:

- предстоящие новогодние каникулы продлятся 11 дней – с 29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по 8 января 2025 года;
- 23 февраля и 8 марта отдыхаем по два дня (22 и 23 февраля, 8 и 9 марта);
- на майские праздники отдыхаем два раза по четыре дня (с 1 по 4 мая и с 8 по 11 мая);
- в День России отдыхаем - четыре дня (с 12 по 15 июня);
-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 три дня (со 2 по 4 ноября).

### 하슈바 사할린 감독의 영화,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튜멘주에서 개최된 <놀 플러스(+)> 국제 아동 및 가정 영화제에서 학생들이 사할린 영화 감독 제니스 하슈바의 작품을 감상했다. 러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이 모여든 영화제는 우정과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긍정적인 주제로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영화제 개막식의 일환으로 영화상영 및 영화배우들의 출연, 음악공연이 열렸다.

올해 <놀 플러스(+)> 영화제에 아프리카를 비롯해 이란, 포르투갈, 세르비아, 인디아 등 여러 국가에서 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영화상영, 활동교실, 창의적 만남, 콘서트를 열며, 온라인 방송을 진행했다. 전통적으로 영화제에서는

우정과 가족, 창작, 재능, 자연, 문화, 과학, 자기실현에 대한 영화들을 선정했다.

제니스 하슈바 감독은 9학년 -11학년 학생들에게 비경쟁 부문에서 자신의 영화 <산스(기회)>를 선보였다. 상영 후 제니스 감독은 자신의 영화제작 활동과 이력, 상영된 영화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했다. <놀 플러스(+)> 영화제는 영화 산업의 새로운 추세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재능있는 동료들과 만남으로 빛나는 행사가 되었다.

###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показали фильм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Хашбы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детского и семейного кино "Ноль Плюс",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Тюмени с 30 сентября по 6 октября, школьники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творче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Дениса Хашбы. Фестиваль, собравший десятки тысяч зрителей со всей России, порадовал позитивным контентом о дружбе, любви и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ях.

В рамках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прошли показы фильмов, выступления звезд кино и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В этом году "Ноль Плюс" объединил сотни тысяч человек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включая Африку, Иран, Португалию, Сербию и Индию, предлагая кинопоказы, мастер-классы, творческие встречи, концерты и онлайн-трансляции. Фестиваль традиционно отбирает фильмы о дружбе, семье, творчестве, таланте, природе, культуре, науке, самореализации. Денис Хашба представил свой фильм "ШАНС" вне конкурса школьникам 9-11 классов. .

(8면에 계속)

##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문예창작 공모전 수상작 심사평

2024년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기념 문예창작 공모전의 주제는 <우리 가족>으로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의 전통, 풍습, 사할린의 역사와 관련된 글을 공모했다. 러시아에서 올해를 가정의 해로 정한 만큼 가족에 대한 글을 기대했다.

한글로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표현 그 이상의 것이다. 글 속에 담아내는 감정과 생각은 사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고, 우리 민족의 영혼을,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을 탐구하는 위대한 행위이다. 때로는 삶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진실한 글은 그 혼란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진정한 인간성을 드러낸다.

여러분이 공모전에 제출한 글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진실이며, 그 진실은 여러분의 손끝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좋은 글은 우리의 삶과 마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의 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며, 그 글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숨쉬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이 글을 쓰면서 끝없이 외롭고, 서럽고, 아파하는 인간의 영혼을 담아낸 그 노력은 헛되지 않다.

여러분과 여러분 부모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글과 그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준다. 이러한 체험수기나 생활수기, 시들은 사할린과 한민족 공동체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9월 중순까지 접수된 한글 작품들은 체험수기와 생활수기, 시다. 모스크바 강 울가 씨의 <나의 첫 한국 여행>은 한국 여행에 대한 체험과 감동을 잔잔히 전했고, 강순옥 씨의 <아버지에 대해>는 사할린에

강제징용으로 오게 된 아버지의 한과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다.

김경순 씨의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는 사할린에 오게 된 부모님의 삶과 정서, 특히 일제 강점기 한국과 사할린에서 어머니가 강직하게 지켜오신 삶에 대한 원칙과 애환과 눈물을 세밀하게 그려놓았다. 특히 "저희 부모님은 물고기를 잡아서 주시는 부모님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라고 낚싯대를 주시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잘됨을 자랑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라는 김경순 씨의 고백은 강직한 부모님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 잔나 씨의 <사할린 사람의 사 고방식>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글로서 사할린에서 살아온 부모님과 자신 등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한인으로서 사할린의 자연, 사할린의 문화, 사할린의 사람들과 어울려 사할린 사람이 되어 힘차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삶을 그려냈다. 영주귀국한 이수자씨는 <역사적인 모국생활>에서는 모국에 귀국하여 문산 선유리에서의 새로운 삶을 여는 기쁨을 전했다.

박정순 씨의 <나의 아버지의 이야기>는 일제 강점기 만형 대신 사할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아버지는 탄부로 일하며, 일평생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었지만 사할린 땅에 뼈를 묻었다. 딸로서 아버지의 조국과 서신교환을 도우며, 그 서신 속에 담긴 아버지의 통한과 조국과 연계에 대한 노력을 비로소 이해했고, 90년대 초 한국의 친척들과의 만남에서 그녀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의사소통을 할 때 아버지의 영혼이 전하는 따뜻한 피의 통일감이 느껴집니다.'라고 쓰고 있다.

하바롭스크 배순미 씨의 <우리 엄마의 김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

다>는 글은 가을에 온 가족이 모여 담그는 김장김치, 손가락이 부르도록 갠 마늘로 담근 김장김치를 독에 담아 살얼음이 낀 배추김치를 꺼내 한 조각을 찢어 입에 넣어 먹는 상큼하고, 시원한 맛 속에 깃든 어머니와의 유쾌하고 정감 넘치는 추억을 그려냈다.

사할린 국립대 3학년생 안티포와-키리나 타치야나의 <작은 행복>은 소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상, 긍정적이고 밝은 관점으로 보려고 하면 다르게 볼 수 있고, 행복을 찾아낼 수 있다며 '행복은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는다. 쉽지 않지만 그것은 작은 걸음부터 시작되며, 작은 걸음들이 쌓여 환상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정상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블라디보스토크 국립대 법학대학 국제관계학과에서 제2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4학년생들 8명은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이유 및 그 의의>를 각자 피력하며, 세계 각국 간 상호작용과 협력을 연구하는 분야에 대한 자신들의 꿈과 자부심을 이야기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립대 2학년 베렌자예와 울리아는 청년기의 고독과 절망의 깊이에서 솟아오르려는 열망을 표현했다.

시 부문에서 83세이신 김순희 씨의 <봄은 어떤 계절인가>, <가을은 그런 계절인가>라는 제목으로 낙엽처럼 물들어가는 마음, 봄이면 어김없이 생생하게 돋는 생기로 정답게 살고픈 마음을 표현했고,

이채인 씨의 <문 열어주세요!>는 시적 감각이 뛰어난 함축된 언어로 고국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르며, 사할린 한인들의 고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살고픈 간절한 마음을 강하고, 절제된 언어로 표현했다.

(심사위원들을 대표해 박혜신)

##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문예콩쿠르 수상작

### 문 열어 주십시오!

3등, 유즈노사할린스크, 동포 2세 이채인, 77세

아버지, 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손시럽고, 발시럽고, 못 견디겠소...  
어머니,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손시럽고, 발시럽고, 더는 못 견디겠소...  
우리 부모님들께는 50년이란 긴 세월이  
그림자처럼 자국도 놔두지 않고  
한 순간에 타국에서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2세도 백발된 노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이여, 나라가 힘이 없어  
잊어버린 사할린 한인 찾아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2024.08.15

## 러시아 보리스 슈킨 연극대학 분교, 처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운영

(1면의 계속)

에브게니 크나제브 학장은 "2024년 10월 23일은 우리 대학이 110주년을 맞는다. 우리의 첫 분교는 사할린을 위해 만들어준 큰 선물이다. 만약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거대한 전망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러한 분교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교육은 스타니스라브스키가와흐탄고브에게 제안했던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우리 교사들은 프로그램에 와흐탄고브의 방법론을 결합시켰다. 여기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주요 선생님들이 출장 강의식으로 이곳에 올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여기에서 영구적으로 일할 교사를 양성하는 석사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그중 2명은 체호브 센터의 배우이고, 한 명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감독이다."라고 말했다.

슈킨대학의 분교를 열기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 국립사범대학 건물 일부를 임대해 대규모 개조공사를 진행했다. 이 건물에 연극 공연장, 가무 및 분장 수업을 위한 강의실을 갖추었고, 건너편에는 대학생의 거리가 펼쳐진다.

슈킨대학 사할린 분교는 2025년 봄에 첫 입학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극장을 위한 전체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장학생 1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 학생들은 드라마 연극 및 영화 연기 전공에 따라 출석수업을 하게 된다.

슈킨대학 사할린 분교는 2025년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 한국인 첫 노벨문학상에 재외동포 번역가들 숨은 공로 빛났다

채식주의자 · 흰 · 소년이 온다 등 한강 작품들  
거주국서 번역 역할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한강 작가가 10일(현지시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노벨문학상을 받은 데는 각국 재외동포 번역가들의 숨은 공로도 빛났다.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동포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국어 및 여러 언어로 번역된 그의 책을 구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11일 동포사회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작품이 각국에 제대로 소개될 수 있게 노력한 재외동포 번역가는 윤선미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 교수 등 8명이다.

윤 교수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흰', '소년이 온다'를 스페인어로 번역했다. 그는 학창 시절을 아르헨티나에서 보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에서 스페인 문학을 전공했고,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에서 중세 스페인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귀국한 뒤에는 한국문학번역원 번역아카데미에서 서어권 전문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윤정 브라질 상파울루주립대

교수는 '채식주의자'를, 김지윤 상파울루대(USP)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소년이 온다'를 각각 포르투갈어로 번역했다. 임 교수는 10대 시절 브라질에 이민 간 1.5세대.

일본에서는 김훈아 번역가가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를 일본어로 번역했다. 그는 일본 시마네현의 국제교류원에서 문학 작품을 번역하고 있으며, 센슈대와 도쿄여자대에서 한국 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사할린 출신의 이상윤 번역가는 '채식주의자'와 '소년이 온다'를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이 밖에 정은진 프랑스 국립동양학대 교수는 '채식주의자', '흰', '희랍어 시간', '소년이 온다' 등 네 편의 작품을, 최경란은 '작별하지 않는다'를 각각 프랑스어로 번역했다.

프랑스어권의 대표적인 한국문학 전문 번역가로 알려진 최경란은 한국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뒤 프랑스에 유학 후 파리에 정착했다.

독일 뮌헨에서 대학 강사로 일하며 번역가로도 활동하는 이기향은 '채식주의자'와 '흰'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 세계한인 언론인들, "디지털 미디어 시대 재외언론의 대응방안 모색"

제25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10월 14일 개막  
제16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도 개최

제25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와 제16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 재외언론의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10월 14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막했다.

180여 개국 재외한인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지구촌과 고국을 연결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김명곤·이하 세언협)가 주최한 개막식에는 국내외 재외동포 관련 인사들을 비롯, 30개국에서 온 동포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명곤 세언협 회장의 개회사와 김홍수 세언협 상임고문의 환영사에 이어, 이기현 민주당 의원, 김덕룡 김영삼센터 이사장,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이종찬 광복회장, 이상의 함평군수, 양창영 한상드림아일랜드 대표이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강원도 지사, 김성희 민주당 의원, 이상덕 재외



'제25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막했다. (사진=동포나루 한은경 기자)

동포청장, 이완섭 서산시장은 서면으로 축하 인사를 대신했다.

(7 면에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исательница Ким Чжу Хе удостоена премии «Ясная поляна»

Американ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им Чжу Хе удостоена росси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ной премии «Ясная Поляна» 2024 года в номинации «Иностра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за роман «Звери малой земли».

Церемония объявления лауреатов премии и их награждения прошла 10 октября в Большом театре в Москве.

Вместе с автором книги премия вручена её переводчику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Кириллу Батыгину. Зарубежный автор - лауреат премии – получает 1 млн 200 тыс. рублей (12.350 долларов), а переводчик - 500 тыс. рублей (5.150 долларов).

Литературная премия «Ясная поляна» учреждена в 2003 году Музеем-усадьбой Льва Толстого «Ясная поляна» и компанией Samsung Electronics Russia к 175-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Льва Толстого. Премия в номинации «Иностра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вручается с 2015 года.

Роман Ким был выбран из короткого списка из 10 работ, обойдя, в частности, польскую писательницу Ольгу Токарчук, лауреата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Действие романа «Звери маленькой страны» происходит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колонизации (1910–1945 гг.) и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жизни простых людей, борющихся за выживание 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нига была опубликована в Южной Корее в 2023 году издательством Dasan Books.

Перед объявлением награды Ким сказала, что такое признание «... большая честь. Чувствую, что это был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ставить миру тигра, символ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и, в более широком смысле, пробудить гордость за нашу культуру и историю».

(По материалам СМИ)

## По случаю 76-й годовщины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отношений

Сеул, 13 октября – ИА РУСКОР. Посол Росс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овел прием в честь 76-й годовщины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ообщи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СМИ Пхеньяна.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послом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ом Мацегорой, состоялось в Пхеньяне в пятницу с участи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Чо Сон Хи в преддверии годовщины, которая приходится на субботу, сообщает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укрепляют военные связи, а такж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с тех пор, как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ровели саммит в июне в Пхеньяне. Они подписали новый договор о партнерстве, который включает пункт о взаимной обороне.

«Три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между КНДР и Россией стали истор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которое наглядн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о искренность дружбы и единства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и превратило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КНДР и Россией во всеобъемлюще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артнерство и непоколебимые товарищ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 сказала Чо. Далее министр заявила, что российская армия и народ сплотятся вокруг Путина и обязательно добьются успеха в защите суверенных прав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ы. Она также заявила, что договор, подписанный двумя лидерами, выводит партнерство стран на самый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в план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 тактических консультаций и отнош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ы наблюдаем, как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звиваетс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НДР в нескольких областях», — сказала она.

Хот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удя по всему, пропустила осно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75-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Китаем в этом году, присутствие Чо на приеме, устроенном российским посл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растущих связях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Москвой.

## Пак Сун Ок проводит встречи в РК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месте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посетивших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с деловой поездкой в Сеул отправилась президент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В своем Телеграмм-канале она сообщает:

«Одной из важных встреч по решению вопросов, касающихся второго и последующих поколений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тала встреч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подином Пён Чоль Хваном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

Кроме того,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депутат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итогам встреч нам были предложены несколько вариантов решения данного щепетильного вопроса. Варианты,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тщательного рассмотрения и обсужд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с компетентными юристами.

От имен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ыражаю больш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руководителю KIN Че Сан Гу за помощ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встреч и сопровождение.

А также благодарю господина Ли Су Дина - почетн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ыне председателя диаспоры в г. Намъянджу, за оказанную помощь.»

##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конкурсов, объявленных газетой «Сэ коре синмун»

11 октября в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е «Маяк»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состоялась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конкурсов, приуроченных к 75-летию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В зал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дипломатические работники, руководител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МИ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частники конкурсов и верные читател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ржество открылось лиричной музыкой в исполнении ансамбля каягимов «Тальмури» ДШИ «Этнос» (руководитель Чео Наталья). А затем на экране прошла небольшая презентация, в которой отразилась 75-летняя история газе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здающейся на Сахалине.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Виктория Бя поблагодарила всех, кто пришел разделить этот праздник,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для газеты самое главное – это читатель, и представила самого важного, на её взгляд гостя – бабушку Соню И Сон Гви. Читатель газеты с 75-летним стажем, она и сегодня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т выпуск каждого номера и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отметит свой 100-летний юбилей. Бабушка Соня не просто поздравила газету, но и спела на корейском о том, как же хорошо жить на Сахалине.

Теплые слова поздравления прозвучали из уст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Росс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димира Носова и начальнич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канцеляр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ак Сан Тхе, которые подчеркнули роль газеты в популяризации и сохра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не тольк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а, но и всей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Газету поздравил также депутат городской Дум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ениамин Пак, который обратился к своей бабушке. Депутат предложил вместе подумать о том, как привлечь к чтению газеты молодежь. Чтобы газета продолжала жить, нужны молодые читатели.

С пламенной речью к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обратился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г-н Чжон Сын Хун. Буквально накануне прошла весть, что лауреатом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в литературе стал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писательница Хан Ган. Под большим впечатлением от этой новост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призвал люби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у, подписываться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укрепление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В этот день член Президиум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Вера Болтунова вручила благодарственное письмо ровеснику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фотокорреспонденту национальной газеты Ли Е Сику, который публикует свои фото в нашей газете уже более 50 лет.

Были объявлены итоги фотоконкурса и литературных конкурсов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участниками которых ст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школьники и студенты из Москвы, Владивостока, Хабаровск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онечно, Сахалина. Главными темами конкурсов стали темы семьи, идентичности 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По итогам фотоконкурса призовые места было решено не присуждать. Обладателями почетных призов стали: Ан Ен 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я Ирина (Хабаровск), южносахалинцы Ким Сан Сун, Пак Лидия, Тен Алина, Чео Ната-



лья. Компетентное жюри в лице члена Союза писателей России Романа Хе, доктора филолог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а СахГУ Елены Иконниковой, поэта Тэхо Чана отдали 1-ое место за эссе «Папа»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о Мен Су (65 лет,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2-ое место поделили Бя Ирина (Хабаровск) и Ким Сан Сун (Южно-Сахалинск), 3-е место завоевали Ким Марина и Ким Вон Дя. Специальный приз жюри был присужден школьнице Арине Ни, попробовавшей сравнить корейские и русские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Участвовавшие в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члены жюри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и Тэхо Чан поделились своими эмоциями, навеянными работами конкурсантов, о том, что уже давно плодотворно сотрудничают с редакцией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ставитель жюр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ак Хе Щин дала оценку работ большинства конкурсантов, отметив положительные стороны работы.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а работа Ким Ген Сун «Я - счастливый человек»,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работа Ни Жанны «О менталитет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работы Боку Ден Сун («Рассказ о моем отце») и И Чын (стихотворение «Откройте дверь»).

Своими мыслями, эмоциями, искренними пожеланиями и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поделились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Ким Ген Сун, И Чын, Ким Сан Сун, Тен Алина и Боку Ден Сун.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ми письмами редакции отмечены замечательные люди,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многих долгих лет поддерживают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В этот день прозвучала песня «Сахалинский Ариран» на слова нашей землячки Пак Ен За в исполнении Кан Петра. Подарком стали танцевальные номера от ДШИ «Этнос» (руководитель танц. коллективов Ким Анна), которые исполнили танец «Вонхва» и кей-поп танец.

Общение продолжилось за фуршетом, где гости продолжили поздравлять конкурсантов с заслуженными наградами, а сотрудников редакции с юбилеем газеты.

(Наш корр.)  
(Фото Ли Е Сика)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Москва призывает Сеул избегать провокаци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ласти должны серьёзно отнестись к предупреждениям Пхеньяна и прекратить провокационные действия, которые усугубляют напряжённость и могут привести к реальным вооружённым столкновениям. Об этом заявила 14 октябр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Москве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Мария Захарова, комментируя сообщ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 том, что 3,9 и 10 октября над Пхеньяном были замече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с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ми листовками. Такие действия являются нарушением суверенитет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 вмешательством в её внутренние дела, заявила Мария Захаров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Южной Кореей концепции слияния двух Корей путём навязывания псевдолиберальных ценностей и расширения «свобод»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угрозу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ля её собственных граждан», - добавила она. Ранее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К Ким Ён Хён заявил, что не может подтвердить сообщ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о беспилотниках.

## Артиллерия КНДР на границе приведена в боевую готовность

12 октября артиллерийским подразделениям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азмещённым вдоль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отдан приказ находиться в состоянии полной боевой готовности. Как отмеч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вечером 13 октября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приказ находится в состоянии, предусмотренном законами военного времени, отдан восьми артиллерийским бригадам, расположенным вдоль границы с Югом, и постам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ы в Пхеньяне.

«Мы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едупреждали, что будем действовать по нашему усмотрению, считая любые вновь замеченные беспилотники принадлежащими РК и считая это объявлением войны», - говорится в отдельном заявлении от имен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11 октябр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явила, что трижды с начала этого месяца в ночном небе над Пхеньяном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с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ми листовками, пригрозив применить силу, если подобные полёты повторятся.

В опубликованном 12 октября заявлении заместителя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им Ё Чжон говорится, что «Южную Корею ждёт ужасная катастрофа, если беспилотники снова полетят на Север». В заявлении содержится призыв к южнокорейским военным принять меры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повторных нарушений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КНДР прекратила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лендарь чучх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екратила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лендарь чучхе», то есть, систему летосчисл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которой, 1912 год, когда родился основатель КНДР Ким Ир Сен, является «первым годом чучхе».

Данный календарь был официально принят в 1997 году, через три года после его смерт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спользовала «календарь чучхе» наряду с григорианским календарём.

В заявлении заместителя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пропаганды и агитации ЦК ТПК Ким Ё Чжон от 12 октября нынешний год был назван 2024-м, в то время как в более ранних официальных заявлениях его называли «113-м годом чучхе».

Главн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начиная с 13 октября, не использует «календарь чучхе» как в печатной версии, так и на веб-сайте. По мнению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это мо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отражение желаний нынешне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не опираться на наследие своих предшественников.

## Доходы от показа отечественных фильмов в РК побили рекорд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развитию кинематографии, в сентябре доходы от демонстрации фильмов в кинотеатрах страны составили 81 млрд вон (59 млн 200 тыс. долларов), а число зрителей превысило 8 млн 120 тыс. человек.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месяце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зрителей выросло на 73,9%, а продажи увеличились на 77,7%. Более 80% доходов составила доля фильмов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что явилось рекордным показателем с начала года.

Это стало возможно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благодаря успеху криминального боевика «Ветеран-2». Выйдя на экраны 13 сентября, он привлёк в кинотеатры до конца месяца более 6 млн 490 тыс. зрителей.

Зарубежные фильмы показали слабые результаты, собрав за месяц 19 млрд 100 млн вон (14 млн долларов). Их посмотрели 1 млн 910 тыс. зрителей.

RKI

## В Южной Корее сметают с книжных прилавков произведения Хан Ган

Южная Корея встретила с ликованием объявление о том,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ьница их страны писательница Хан Ган получила Нобелевскую премию по литературе. Буквально с утра перед книжными магазинами выстроились очереди желающих купить книги Хан, ее произведения приобрели такую бешен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что издательства не справляются с наплывом заказов. Менее чем за день продано более 300 тысяч экземпляров ее книг.

Награда Хан Ган, которая, бесспорно, знаменита и популярна как писатель у себя в стране и за рубежом, стала большой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Утром 11 октября перед книжными магазинами страны выстроились длинные очереди тех, кто с нетерпением дожидался открытия дверей. Затем все как один ринулись к прилавкам, где уже на самых видных местах леж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Хан Ган. Их стали попросту «сметать», продавцы хотя и ожидали наплыва, но все же оказались не готовы к такой волне.

Что-то похожее происходит до сих пор в онлайн-магазинах: они переполнены заказами, а издательства говорят, что они работают на полную мощность, но не успевают справляться с заказами.

Всего за пять часов работы книжных магазинов показатели продаж книг Хан Ган превысили 300 тысяч экзем-

пляров. Эксперты с удивлением отмечают, что они ожидали определенного ажиотажа с утра и спада заказов и покупок после обеда, но пока происходит наоборот. Книги Хан Ган сегодня в Южной Корее безусловно доминируют среди бестселлеров.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крупнейшего книжного магазина Сеула «Кёбо Мунго», к полудню книги Хан занимали с первого по девятое место в списке самых популя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Хан «смела» уже с 1-й по 19-ю строчку, задвинув в третий десяток ранее популярные бестселлеры.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сейчас бушует «лихорадка Хан Ган». Самих корейцев же остается только поздравить и порадоваться за них. Они ждали очередной «своей»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почти четверть века и дождалис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Готовы открыть огонь на поражение: Сеул и Пхеньян "сжигают мосты" в отношениях друг с другом

### КНДР взорвала дороги, ведущие в Южную Корею

Военные КНДР взорвали ряд дорог, ведущих в сторону Южной Кореи. В ответ южане открыли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й огонь и повысили боеготовность свои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Параллельно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провел заседание с военными, обсудив ситуацию с проникновением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 небо над Пхеньяном. КНДР дала понять, что готова открывать огонь без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в случае новых провокаций со стороны Юг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итуация обострилась, и практически ни дня не проходит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без стрельбы или взаимных угроз. Вторник в этом плане был особенно насыщенным днем. С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аспространили видеозапись, где видно, как на дорогах, у самой границы, разделяющей две страны, происходит крупный взрыв одной из связывавших их дорог.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в Пхеньяне предупредили, что планируют «блокировать», «полностью перекрыть» и «ликвидировать» железные, автомобильные и прочие дороги, которые связывают Север с Югом. После этого было замечено, что военные КНДР стали минировать полотно. По информации южан, КНДР заложила взрывчатку буквально в 10 метрах от линии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хотя и прикрыла место своего рода экраном высотой в шесть метров.

Южане ждали подрывов и заранее определили опасную зону не менее 500 метров, потому пострадавших не было. Вместе с тем куски земли и осколки камней залетели на южнокоре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в связи с чем военные РК открыли предупредительный огонь из пулеметов, выпустив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пуль. Правда стреляли аккуратно, чтобы не задеть северян, а просто выразить протест.

Развитие получила и история с загадочными дронами, которые, согласно заявлению КНДР, были направ-

лен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и разбрасывали над Пхеньяном листовки 3, 9 и 10 октября. Как сообщили СМИ КНДР, председатель Госсовета Ким Чен Ын в понедельник, 14 октября, провел по этой теме совещание с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ми военными и должностными лицами, ответственными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Отмечено, что Ким Чен Ын получил доклады о шагах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ерьезной провокации со стороны врага», включая меры военного и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Он предостерег от проведения «незамедлительных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и предложил «важные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ть выполнены в рамках сдерживания войны и реализации права на самооборону для защиты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Об их конкретном содержании ничего не сказано, но ранее КНДР уже официально предупредила РК, что в случае повторения инцидентов с дронами Север откроет огонь на поражение без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Находящаяся вдоль границы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артиллерия была выведена на позиции для немедленного начала стрельбы по территории соседа. В ответ военные РК также подготовили свои системы для ответного огня, а в воздух были подняты самолеты-разведч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РК сначала опровергло обвинения со стороны Пхеньяна, но затем скорректировало позицию, заявив, что просто отказывается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ситуацию. Эксперты Юга, обсудив несколько версий, склоняются к мнению, что к инциденту «приложили руку» мест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Активисты неоднократно направляли листовки в КНДР, используя для этого воздушные шары.

Эксперты предупреждают, что обе стороны, в целом не желая этого, могут принять нелепую случайность за атаку и начать вооруженный конфликт.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Ф)

## Возможность получения стипендии для студентов, обучающихся в ВУЗах стран СНГ

Зарубежны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лучение стипендии от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 Кто может подать заявку:

Студенты ВУЗов СНГ, учащиеся бакалавриата или магистратуры.

Лица корейск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являющиеся студентами на текущий момент (кроме поступивших на осенний семестр 2024 года).

Сумма стипендии для России, Казахстана-1200 долларов в год.

Для остальных стран-1000 долларов.

### Основные критерии отбора:

1. Высокая успеваемость
2. Желание принести пользу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Кореей и страной проживания
3. Преимущество имеют следующие лица: Потомки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лица с низким

материальным достатком, участники различных олимпиад, владеющие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сертификат ТО-ПИК), активно принимающие участие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дробно написавшие эссе.

### Кто не мож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грамме:

1. Поступившие на бакалавриат в сентябре 2024г.
2. Те, кому до окончания остался один семестр.
3. Низкая успеваемость(менее 70 баллов)
4. Предоставившие документы не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ребованиями.
5. Предоставившие поддельные документы, либо указавшие ло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Заявл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5 октября(пт) 2024года.

Вс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опросы вы можете отправить по адресу:

scholarship@okocc.or.kr

(Источник:

https://t.me/koryoin\_globalnet)

##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и современный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парк

Лучш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агропарк с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м центром запус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Благодаря появлению такого объекта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а сохранность урожая местных овощей, островные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и смогут расширить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дукции, а для торговых предприятий улучшат логистику поставок товаров на острова. Старт работе агропарка 15 октября д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наше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растут объ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овощей, мяса, молока. Но продукцию нужно не только произвести, но и сохранить в лучшем качестве. Каждый год мы теряли ее часть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современных складов. Сегодня эта давняя проблема решена. Теперь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ут быть уверены, что капуста, морковь и свекла, выращенные этим летом, доживут до нового урожая. Раньше людям приходилось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покупать китайскую продукцию – менее качественную и более дорогую. Кроме того, в агропарке местным предприятиям дали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лини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здесь начнут выпускать около 80 наименований продукции – от колбасных изделий и вяленой рыбы до БАДов и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Современные складские мощности сделают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работу предприятий оптовой и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й центр позволит организовать бесперебойные поставк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в торговые точки области. Немаловажно и то, что для сахалинцев в агропарке открыли более 300 вакансий,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езидентами агр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ка стали уже 26 предприятий. Они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производством охлажденной свинины и говядины, мясных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пельменей, колбасных изделий, рыбных пресервов, БАДов из морской капусты и тюленевого жира. Есть планы по выпуску сахалинской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и одноразовой посуды.

Также в агропарке разместится центр биоэлементологи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В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лабораториях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детальный молекулярный анализ продукции, чтобы сделать ее еще более полезной.

Одна из основных задач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 обеспечить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ую безопасност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 С запуском агропарка мы д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дприятиям хранить и перерабатывать продукцию в лучшем качестве доставлять на прилавки торговых точек. На 30 процентов сократятся издержки, связанные с логистикой и потерями при хранении. Это суперсовременный комплекс – лучш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ы создаем условия, чтобы предприя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торговли могли развивать свой бизнес, выпускать и поставлять новую продукцию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Одним из резидентов стал мя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завод «Мясной телянок». В рамках ТОП предприятия будет пользоваться преференциями, в том числе нулевой ставкой налога на прибыль.

Это существенное подспорье для нас, чтобы обеспечивать более доступные цены для людей. В агропарке созданы очень хорошие условия. Мы будем производить здесь колбасы вареные, полукопченые и копченые, ветчину, сардельки, сосиски, планируем расширять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дукции. Еще хорошо, что все основ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в одном месте. Если раньше мы закупали мясо в «Мерси Агро» и «Грин Агро», то теперь мы работаем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мяс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завода «Мясной телянок» Алексей Плотноков.

Всего агропромышленный парк объединяет три корпуса. Помимо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корпуса площадью 5000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где разместились островные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 объект включает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й центр на 15 тысяч тонн единовременного хранения и овощехранилище на 1000 тонн.

Как рассказал гендиректор АО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Медведев, уникальность нового овощехранилища в том, что здесь создан необходимый микроклимат с температурным режимом, системой вентиляции, влажностью воздуха.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срок хранения овощей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ырастет с 5-6 до 9 месяцев.

Оптов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й центр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мультифункциональный склад, где по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будут храниться все типы продукции. Здесь предусмотрены морозильные камеры с функцией шоковой заморозки, сухой склад продуктов первой необходимости, а также камеры с функцией регулируемой газовой среды, где можно будет месяцами сохранять свежими привозные фрукты и овощи.

## Более 800 новых компаний открылось при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Мой бизнес»

Это заведения общепита и индустрии красоты, спортивные секции и студии доп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медицинские клиники, туристические, реклам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а также ряд других. В центре вот уже 5 лет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ют более 400 бесплатных услуг благодаря нацпроекту «Малое и средне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Центр стал для меня настоящим помощником в открытии моего магазина одежды.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я получила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ую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вопросам бизнес-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специалистов я смогла получить льготный заем, который направила на закуп товара и ремонт магазина,

а также рекламу. Кроме того, центр организовал обучающие семинары, где я узнала о современных трендах в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е и эффективных стратегиях продвижения. Это дало мне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мой бизнес будет успешным, – поделилась владелица магазина одежды «На стиле» Татьяна Белоусова.

Сегодня в структуре островного центра «Мой бизнес» восемь отделов. В Центре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ервич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о открытию своего дела, записаться на обучение или профильную выставку.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поддержки экспор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могают выйти на зарубежные рынки, в отделе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микрозаймы по льготным процентным ставкам – от 6% годовых.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 «выращивает» новые проекты и масштабирует действующие: в числе его резидентов – 84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Информацион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отдел помогает компаниям получать возмещение части затрат на инвестпроекты: за пять лет инициаторам выданы субсидии на общую сумму 3,5 млрд рублей.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кооперации оказывают поддержку фермерам: в составлении документаци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грантов и субсидий, решении земельных вопросов, обучении. С более круп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работают экспер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компетенций в сфере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помогают наладить бизнес-процессы, используя инструменты бережли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В этом году в регионе появился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который также работает на базе центра «Мой бизнес».

16 октября наш центр отмечает первый юбилей – 5 лет со дня открытия. За это время он стал местом притяжения дел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региона. С каждым запросом мы работаем индивидуально: помогаем составить финансовую модел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 свое дело, наладить стратегию продвижения, а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аправляем на обучение к ведущим бизнес-экспертам,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на базе которого основан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Павел Кононец.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самозанятых, начинающих и действующ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роходят регулярно, темы встреч формируются по запросу клиентов. За всё время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прошли около 9 тысяч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Следить за делов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можно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t.me/calendar65](https://t.me/calendar65).

Мы тренируем игру в теннис детей и взрослых, проводим соревнования и выставочные матчи. Долгое время мы арендовали корт, потом решили построить свой центр.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 именно бизнес-инкубатора, мы создали ООО, которое в дальнейшем стало резидентом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Планируем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построить открытые теннисные корты, – рас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теннисного клуба «Хоккайдо» Александр Котвицкий. Помощь владельцам своего дела в регионе оказывают благодаря нацпроекту «Малое и средне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который иницииров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братиться за консультацией в сахалинский центр «Мой бизнес» можно лично по адресу ул. Емельянова, 6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8 800 222 0123. Подробнее об услугах – на сайте [mybusiness65.ru](https://mybusiness65.ru).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 работу первый в России филиал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ступил к работ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илиал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В здании завершили масштабный ремонт. Уже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чнут обучать актеров театра и кино. 14 октября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ректор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Ф Евгений Князев рассказали о будущем вуза.

Наш остров становится центром развития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У нас много творческих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Теперь им не придется ехать в Москву или другие города России,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театр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аоборот, лучшие педагоги будут ехать к нам, чтобы передать свои знания в сфере актерского мастерства, режиссуры, подготовки сценариев. К нам будет стремиться талантливая молодежь со все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едь именно здесь буде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кадровая база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театров, а также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ветственный адрес в честь значимого события направ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РФ Ольга Любимова:

— Это важный шаг на пути развития театр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Уверена, что открытие филиала одного из ведущих творческих вузов страны сделает культурную жизнь региона еще более насыщенной, а гастроли дипломных спектаклей Учебного театра Театрального института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станут ярким событием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а Ольга Любимова.

Ректор Щук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Евгений Князев передал главе региона бюст Евгения Вахтангова – советского режиссера, актера и педагога, любимого ученика и преемника Константина Станиславского. В 1914 году Вахтангов создал собственную театральную школу, по методике которой больше века преподают в знаменитой «Щуке».

— 23 октября 2024 года нашему институту исполняется 110 лет. Это огромный подарок, который сделал для нас Сахалин. Это наш первый филиал, и он бы никогда не появился, если бы не большое желание и поддержка вашег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Игоревича. По сей день у нас преподавание идет так же, как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Вахтангову Станиславским. Наши педагоги соединили его методы в программу. Нам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здесь эта программа сохранялась. Мы думаем о том, как вахтанговскими методами наши основные педагоги будут к вам приезжать. Прямо сейчас у нас уже работает магистратура, где мы обучаем педагогов, которые постоянно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здесь. Двое из них – актеры «Чехов-центра», один – режиссер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 рассказал Евгений Князев.

Филиал Щук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занял часть зд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СахГУ, где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ый ремонт. В здании оборудовали залы для театральных постановок, занятий по хореографии, гримерки, а перед ним разбили студенческий бульвар.

Первая приемная кампания здесь будет запущена весной 2025 года. Сахалинский филиал вуза планирует набрать около 15 студентов на бюджетные места и по целевым программам для театров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ни будут обучаться очно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Актер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и кино». Полноценно филиал Щукин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заработает с 1 сентября 2025 года.

Театральный институт имени Бориса Щукина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академическом театре имени Евгения Вахтангова – один из самых прославленных вузов в России, в котором готовят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актеров и режиссеров. Его известные выпускники – Василий Лановой, Андрей Миронов, Константин Райкин, Александр Ширвиндт, Наталья Гундарева, Леонид Ярмольник, Наталья Варлей и др.

## Новый электрогенератор приобретут в детский сад в Курильск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жителями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на Итуруп. Встрече прозвучали десятки вопросов. Больше всего ж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интересовали вопросы состояния дорожной сети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дител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Аленушка» в Курильске попросили приобрести генератор для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Как поделилась обеспокоенная мама, из-за возникающих перебоев с электроэнергией наставники просят забрать детей раньше окончания рабочего дня.

— Я от лица родителей хочу попросить купить в детский садик генератор. У нас его нет, н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часто отключают свет. Недавно детей отпустили домой, когда мы все работали, – рассказала курильчанка.

Руководство учреждения подтвердило, что такая проблем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есть. Два года подряд садик подавал заявку на по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однако процесс затянулся.

— Я поддерживаю заявку. Генератор надо купить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Еще один вопрос касался обеспечения перевозок детей из села Рейдово на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Курильске.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сейчас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нет соб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чтобы возить детей.

— Мой ребенок ходит в школу в Рейдово. Как детям добираться в Курильск на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 спросила мама.

— Давайте предусмотрим транспорт. Эта задача должна быть решена, если нужно будет приобрести автомобиль – купим, – поддержал просьбу мам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жители села попросили обеспе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 местной школе для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В учреждении есть новый тренажерный зал и условия, чтобы проводить тренировки во внеучебное время.

Еще одна курильчанка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когда на Итурупе введут сортировку мусора. Экологичный подход введут в 2026 году,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также обустроят. Также на встрече озвучили, что уже 12 октября в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включат отопление.

Что касается дорожной сети, здесь жителей интересовали остановочные пункты и ремонт дорог.

— В мае я просила сделать остановку в аэропорту. Где остановка? Мы в районе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автобусу неудобно подъезжать, а мы не можем доехать, куда нам надо, – рассказала женщина.

—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удет сделано, работы запланированы ориентировочно на май-июнь, – ответил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Также на 2025 год запланировано обустройство сливов вдоль улицы Лесной.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дорога находится в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о окончании встречи специалисты выехали на место для инспекции.

Наконец, ряд вопросов затронул сферу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ак поделились жители села Горного ряд домов непригодны для проживания – первые этажи затапливает.

— Когда делают ремонт крыши, топятся квартиры до первого этажа. В чем проблема заменить проект и сделать двухскатные крыши? Нужно делать по-другому, по-умному, – сказала местная жительниц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одобное – недопустимо.

— Проблема есть, я сегодня там был и все видел. Люди,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этой работой, делают это плохо. Сегодня выговор получил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я района, и министерство ЖКХ, – ответ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Отметим, что все вопросы, прозвучавшие на встрече с жителями, взяты на контроль. По ним дан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оруче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и установлены сроки исполн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의 '아픈 손가락' 치유 나선 이상덕 청장

원폭희생자, 사할린-고려인-입양인 동포, 파독근로자

"세심한 주의와 배려로 보듬기 정책 만들어 보답"

"재외동포의 숫자가 점차 감소 추세입니다.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줄고 있으나 재외동포의 국내유입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대응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동포사회가 성숙해 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러한 흐름에 소외되어 왔던 동포들에 대한 보살핌도 필요합니다. 비록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의 거주국 간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보다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저로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재외동포들께서 공감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7월31일 이상덕 2대 재외동포청장 취임사중에서)

이상덕 청장은 이날 원폭희생자와 사할린·고려인 동포, 파독근로자, 입양인 동포들에 대한 애뜻함을 취임사에 담았다. 1902년 123명이 제물포항을 떠난 한인들의 후손들이 현재 710만 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재일동포와 파독근로자들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주역들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의 희생위에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청은 이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아픈 손가

락'이었다. 이 청장은 이를 의식한 듯 취임하자마자 '아픈 손가락'에 대한 '치유'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 청장은 취임하자마자 지난 8월5일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날 간사이 지역 재일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리는 위령제에 참석했다. 이 청장은 "원폭 한국인 희생자들과 일본에 남아 있는 동포들에게 지난 세월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일동포야말로 한국 산업화에 기여한 일등공신이다.

이런 가운데 재외동포청은 최근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 동포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고려인들에게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에 나서고 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에 의해 강제로 사할린 섬으로 보내져 탄광촌과 벌목장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재외동포들이다. 고려인은 어떤가. 우즈베키스탄 등 구소련지역에서 사는 50만 명의 고려인 가운데 국내에 정착한 동포는 11만여 명. 이 청장은 지난 추석에도 충북 제천에 살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 추석 선물을 주고 격려하면서 "재외동포 이주를 지원하는 지자체 공동으로 고려인 지원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10월14일 저녁 독일 등에 거주하는 파독 근로자 출신 재외동포 32명과 국내에 정착한 파독근로자 48명 총 130여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은평구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이 청장은 "여러분들의 모국 송금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여러분들께서 현지 사회에서 쌓아 올린 훌륭한 평판은 유럽 동포사회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재외동포청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함께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단 포함된 파독근로자 10여명은 한국을 떠난 후 적게는 15년, 많게는 30년 만에 처음 모국 땅을 밟았다. 재외동포청은 국격에 걸맞게 동포 보듬기 정책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하에 지난해에도 파독 60주년을 맞아 파독근로자 모국 초청 행사와 파독근로자 사진전을 개최한 바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세계한인 언론인들,

## "디지털 미디어 시대 재외언론의 대응방안 모색"

제25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 10월 14일 개막

제16회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도 개최

### (3면의 계속)

김명곤 세계한인언론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언론인의 역할이 보다 진취적인 자세로 변화해야 한다"라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화, 정치, 세계의 흐름,

이러 김 회장은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도 언론인에게도 '변해도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며 "이는 바로 진실추구라는 언론인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대형 허리케인 같은 어려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휘청일지언정 꺾여 쓰러지지 않도록 재외언론인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홍수 상임고문은 환영사에서 "동포가 적은 작은 지역에서도 우리말 매체를 고수하며 메신저, 등대 역할을 해온 재외언론인들이 자랑스럽다"고 격려하며, "재외 언론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 이기헌 의원은 "전 세계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재외동포 언론이 직면한 도전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가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축사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처럼 K-컬처가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며, "한국의 전통예술, 문화,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문명을 선도하는 '21세기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가는 데 세계 한인 언론인 네트워크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

부했다. 김성곤 김대중재단 재외동포위원장은 "세계 한인 언론은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로 연결하고 5천만 국내 동포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전 세계 한민족 공동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반만 년 동안 한민족 공동체를 이뤄왔던 2,500만 북한 동포들과는 수십 년째 단절된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같은 민족이라는 천륜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세계 한인 언론이 우리 민족 사이의 끊어진 다리를 복원하는 역할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유민 학술원장이 대신 낭독한 메시지에서 "언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며 역사를 기록하는 중요한 동반자였다"며, "재외언론인들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진화하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굳건히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세계식품박람회 참여해 농산물 유통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며, "함평의 특산품과 한국의 건강한 레시피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 갈등으로 분열된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우려하며, 언론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서, "언론이 앞장서 미담을 전파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아 대한민국의 발전과 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창영 한상드림아일랜드 대표이사는 "한민족의 우수한 DNA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흥익인간 정신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상"이라며, "조국의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포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동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축사가 끝난 후, 김명곤 회장은 지난 2

년여간 협회를 위해 애써온 이덕일 감사, 안치복 부회장, 이석수 부회장, 안미향 소통위원장, 김홍수 상임고문, 이미진 이사장, 정선 수석 부회장, 김민식 부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개막식 이후에 열린 축하공연에는 탈북 예술인들로 구성된 평양 민속예술단의 이여라, 이성미 가수가 나와 한국의 전통 공연과 흥겨운 트로트 가요를 선보였고, 저녁 만찬으로 이어졌다.

4박 5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재외 언론인들은 우리 고유의 문화유적과 지역축제를 취재하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고국의 맛과 멋을 두루 경험하고, 지자체와 세계 한인언론 매체와의 공동 사업과 홍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15일에는 강원도 춘천으로 이동해 아름다운 호반 도시 춘천의 모습을 취재하고, 16일에는 인제, 평창, 원주를 돌며 강원도 지역 축제 현장을 탐방했다. 17일에는 충남 서산으로 이동해 유기방가옥, 해미읍성, 간월도를 방문하고, 다음 날 만리포 해수욕장과 천리포 수목원을 거쳐 18일 오후 서울에 도착해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세계한인언론인협회는 전 세계 30여 개국 80여 개 도시에 거처를 두고 지구촌의 소식을 발로 뛰며 전하는 80여 개 재외동포언론사 연합 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공익단체다.

2002년 제1회 재외동포기자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세계한인언론인대회 및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국내·외 재외동포와 동포언론의 접점을 넓히고 모국 대한민국과 소통하며 750만 재외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서울)=세언협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 "재외동포청 컨트롤타워

역할 하려면 정부 동포

업무 통합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재외동포청이 동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동포 업무를 속히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건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밝힌 자료에서 "지난해 6월 동포정책을 종합해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동포청이 출범 2년 차를 맞았지만 부처간 정책 통합·조정 안 되고 있어서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사업'이 주관은 동포청인데 예산은 복지부에 편성된 점, '동남아 귀환여성 한국 국적 자녀 지원사업'의 경우 동포청은 베트남 남부에서 여성가족지원부는 북부에서 진행해 이원화된 점 등이 대표적인 업무 분산 사례"라고 꼽았다.

또 "동포 차세대 육성의 전초기지인 '한글학교 지원'의 경우 학교 운영, 기자재 지원, 교사 연수 등 모든 지원을 동포청이 주관하는데 학교 등록 권한은 거주지 재외공관에 있는 것도 중복 관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위 사례에서 보듯이 부처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으로 업무 중복과 행정의 비효율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992년 시작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사업은 일본 정부가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적십자사를 내세워 예산 등을 지원하고, 이를 대한적십자사가 받아서 수행해왔다. 그러다가 일본적십자사가 2016년 영주귀국 지원에서 손을 떼면서 한국 정부가 복지부에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왔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지만 76억원의 예산은 복지부에 편성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상덕 동포청장은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의 경우 10여개 정부 부처로 나뉘진 것을 동포청이 원스톱으로 제공해 편리성을 크게 높인 사례가 있어서 업무 통합이 효과적임을 입증한 바 있다"며 소개했다.

이어 "각 부처 정책의 고유한 영역과 전문성은 존중해야 하나 국민 눈높이, 정책 효율성, 책임 구현 등의 관점에서 일관된 수행이 필요한 부문은 동포청이 중심이 돼 단계적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림청의 특별한

## '숲속 음식문화축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중)는 오는 19~20일 이틀간 경기도 양주시 소재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유학생들과 함께 '2024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은 아포코 회원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지속적인 산림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2015년 개관했으며, 당시 아포코 회원국인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의 전통가옥을 테마로 시설물을 조성하였다.

아포코(AFoCO,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부문의 기후변화대응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 협력체제로 시작됐으며, 현재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PDR, 몽골, 미얀마, 필리핀, 대한민국, 타지키스탄, 태국, 티모르-레스테, 베트남 등 15개 당사국과 말레이시아 옵서버 1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5월 한차례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 필리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아세안·중앙아시아 유학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으며, 각국 전통의 상채험, 한식과 각국 전통음식 만들기, 케이팝(K-POP) 댄스 배우기 등의 체험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몽골 등에서 온 유학생 44명이 참석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신문에서)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После показа режиссер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ребят о своей работе, биографии и, конечно, о фильме. "Ноль Плюс" стал ярким событием, позволившим не только увидеть новые тенденции в киноиндустрии, но 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алантливыми коллегами

## 국제 로봇기술축제에서 сахалин팀 2위 차지

10월 7일(월) - 10일(목)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2024-로보피니스트' 국제 로봇기술축제에서 сахалин의 '위빅' 팀이 2위를 차지했다. 대규모 로봇기술 경연에 러시아를 비롯해 벨라루스에서 200팀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40개의 다양한 부문에서 우승을 위해 경쟁했다고 сахалин주 교육청이 소식을 전했다.

아동창작회관에서 출전한 김 알렉세이와 알렉산드르 고르부노브는 연합팀 릴레이 경기에서 최고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나탈리아 구쉬나 선생의 지도 아래 출전했다.

##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завоевала 2 место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робототехники

Сахалинская команда «Vobik» завоевала второе место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фестивале робототехники РобоФинист-2024,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с 7 по 10 октября. В грандиозном соревнован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200команд из России и Беларуси. Участники боролись за победу в 40 различных номинация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департамента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Ким и Александр Горбунов из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оказали отличный результат в Эстафете объединенных команд. Руководителем ребят выступала Наталья Гущина.

## 러시아 국립박물관 소장품 화가들의

## 작품 전시회, сахалин에서 열려

сахалин주 미술박물관 본관 전시실에서 '러시아 국립박물관 소장품의 천재 작가들' 작품 전시회가 시작되었다고 박물관 측이 전했다.

화가- 이동전람 화가들의 전시 기획을 сахалин주 문화고문서부의 논나 라브릭 장관이 개최한 가운데 성대한 분위기 속에 전시회에서는 40점 이상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전시회에는 와실리 수리코브, 알렉세이 사브라스코, 이삭 레위탄, 이완 크람스코이, 와실리 페로브, 그리고리야 마소예도브, 블라디미르 마콥스키 등 많은 다른 화가들의 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2024년12월 8일까지 진행된다.

##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художников из собр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музея

В большом за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начала работать выставка «Выдающиеся художники из собр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музе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учреждения.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художников-передвижников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и откры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На выставке предоставлено более 40 картин.

Там можно найти произведения таких выдающихся творцов, как Василия Сурикова, Алексея Саврасова, Исаака Левитана, Ивана Крамского, Василия Перова, Григория Мясоедова и Владимира Маковского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Отметим, что выставка продлится до 8 декабря 2024 года.

## 1сахалин 동물원, 추수 잉여 농작물 수집 행사 결과 발표

сахалин 동물원의 직원들이 잉여 농작물 수거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고 동물원 측이 전했다.

지난해에 동물원에서는 동물들에게 너무 많은 먹이를 주어서 채소와 멜론류의 수집을 중단해야 했다. 올해는 추수 잉

여 농작물 수집에 대해 홍보하지 않았으나 сахалин 주민들의 열정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동물원 측이 덧붙였다.

많은 주민들이 익명으로 채소들을 헌물한 가운데 직원들은 헌물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돌린스크의 '올리브 카(미소)유치원과 유치원의 학생들은 교사들과 함께 가장 많은 양의 농작물을 가져왔고, 또한 타마라 쿠지노와도 자신의 호박을 가지고 와서 동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었다고 전했다.

현재 직원들은 야외 동물 축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모으고 있다. 이는 여러 크기와 모양의 두꺼운 상자, 종이팩, 화장지롤, 종이행주, 냅킨, 페트병 0.5 리터 - 19리터까지, 종이봉투, 달걀곽, 마대자루, 포대자루, 직물, 이미 눈길이 가지않는 말린 꽃다발 등을 모으고 있다.

## Сахалинский зоопарк подвел итоги акции по сбору излишков урожая

Сотруд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зооботанического парка провели акцию по сбору излишков урожая.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рганизаци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зоопарке пришлось прервать сбор овощей и бахчевых, потому что животных перекормили. В этом году о проведении сбора не афишировали, но энтузиазм сахалинцев превзошел все ожидания, добав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ногие оставили свои дары анонимно. Сотрудники выразили всем благодарность и отметили долинский детский сад "Улыбка", воспитанники которого вместе с воспитателями привезли самый большой по объему урожай, а также Тамару Кудинову, она снова порадовала животных своими тыквами.

Теперь сотрудники собирают вещи, которые пригодятся в вольерах. Это картонные коробки любых размеров и форм, тетрапаки, втулки от туалетной бумаги, бумажных полотенец, салфеток, ПЭТ-бутылки от 0,5 до 19 л, бумажные пакеты, картон из-под яиц, холщовые сумки, мешки и ткань, сухие букеты цветов, которые уже перестали радовать глаз.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5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5 г. — 692 руб. 9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Реклама Березка 2 ул. Украинская М2 Эконом пр-т Мира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